

사학연금

Teacher's pension magazine

01

vol.434.
2023.January



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존경하는 사학가족 여러분!

지난 2022년 임인년은 국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검은 토끼의 해인 2023년 계묘년은 풍요를 상징하는 토끼와 인간의 지혜를 상징하는
검은색이 만나 재난의 굴곡으로부터 벗어나는 시기라고 합니다.



사학연금공단 임직원은 사학연금 가족과 더 나은 희망을
꿈꾸기를 기원하면서 계묘년을 힘차게 달려 나가겠습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면서, 먼저 지난해 공단이 이루어낸
성과를 업무부문별로 간단히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경영관리 부문에서는 고객을 중심으로 한 조직개편
을 통해 조직 및 인력 생산성을 향상하였고, 자발적인 경성
경비 예산절감 및 복리후생 조정 등 공공기관 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며, 노사협력 실무추진담반을 운영하며
직무·성과중심 보수체계 개편방안 수립 등 현안 해결에 노
력을 기울였습니다.

아울러 빚가람 도란도란 클래스,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 등 지자체 및 민간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한 ESG 경
영 실천으로 광주·전남 사회공헌대축전 종합대상을 수상하
였습니다. 특히 전 임직원의 적극적인 에너지 절약 노력으로
공공부문 온실가스 최우수 감축기관으로 11년 연속 선정되
는 등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사학연금이 되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연금사업 부문에서는 시간선택제 및 유치원 방과후 교사
대상 사학연금법 적용을 통해 제도 사각지대 교직원의 가입
권리를 확보하였고, 대학병원 근무자 최초로 코로나19 백신
후유증에 대해 직무상 재해를 인정하여 교직원의 권익을 보
호하였습니다.

또한 ICT 기반을 강화한 스마트 연금서비스를 위해 QR
코드 기반 맞춤형 연금정보를 제공하였으며, 공단 홈페이지
로그인 방법을 개선하고자 '간편인증' 방식 로그인을 도입하
여 고객 편의 최우선 서비스에 집중하였습니다.

아울러 연금개혁에 대비하여 재정추계시스템을 구축하였
으며, 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사립학교교직원 실태 및 인식조
사를 시행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였습
니다.

특히 대전센터 내에 TP 교육센터·소셜에듀센터 등 대면
및 비대면 방식의 교육을 균형있게 추진하는 교육장소를 마
련하여 교직원 여러분들이 지속적인 연금 관련 교육이 이루
어 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癸卯年

지금부문에서는 연초 시작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3고(고물가·고환율·고금리) 시대를 맞이하여 자금운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국내 채권 비중 확대 등 전략적 자산 배분을 통해 자금운용 수익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새해에는 더 나은 모습으로 변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맞춤형 디지털 서비스 제공 및 데이터 이용 활성화 등 연금서비스의 스마트화를 더욱 증진시키고, 퇴직연금 및 재해보상제도 사각지대 적극 해소 및 권익강화 노력을 통한 사각지대 없는 교직원의 권익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수요자 중심 생애주기별 고객중심 복지서비스 운영 및 고도화를 통한 수요중심 서비스 혁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금융시장 상황 및 운용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전략적인 자산배분 계획을 능동적으로 조정하는 등 자금운용 수익률 제고에 힘쓰며, 지속적인 연금제도 개선을 위하여 연금개혁 관련 재정분석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이를 통한 시나리오별 재정효과 분석 역량을 강화하는 등 사학연금기금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서도 힘쓰겠습니다.

셋째, 디지털 전환 등에 따른 핵심중심 기능재편을 통한 생산성 향상에 주력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자산 및 예산운용을 통해 자산 및 예산운영의 합리화를 기하고, 지속적인 홈페이지 고도화 및 민간 수요중심 공공데이터 활성화 등 디지털 경영혁신을 통한 혁신기반 경영효율화도 이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안전·친환경 책임경영 강화와 자금운용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ESG 및 핵심산업 투자확대 등 상생에 토대도한 사회공헌을 강화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윤리경영에 바탕을 둔 지속가능하고 한차원 높은 ESG 경영을 목표로 사학가족과 국민이 함께하는 공공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현재 지하 6층 지상 42층으로 재건축중인 『TP타워』가 여의도의 랜드마크로 자리잡고 공단의 새로운 100년을 밝힐 등대가 될 수 있도록 12월 준공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 공단이 2024년 1월이면 창립 5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2023년은 지금까지의 50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50년을 준비하는 의미있는 해가 되도록 공단 본연의 업무와 함께 고객만족 경영과 ESG 경영을 꾸준히 실천해 나가고 사회적 기여 강화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사장

구명현

사학연금이 만드는 매거진

사학연금



표지이야기

새해가 되면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동물이 바로 십이지신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적 인물 중 김유신 장군의 묘에 가면
십이지신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학연금 1월호는 십이지신상을 만날 수 있는
김유신 장군으로 꾸몄습니다.

CONTENTS



발행인 주명현
발행일 2023년 1월 12일(비매품)
발행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문의 061)338-0363
주소 (58326) 전남 나주시 문화로 245(빛가람동)
대표전화 061)338-0000
등록번호 나주 라 00010
등록일자 2006년 1월 12일
기획·디자인 승일미디어그룹(주)
연금업무 상담 1588-4110(유료)

공감

- 06 **명언**
십이지신의 보호 속에 잠든 김유신 장군
- 08 **여행**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곳, 경주 '동궁원'
- 14 **특집**
- 창립 50주년 대비 공모전 당선작
- 2022년 사학연금 재능나눔 캠페인 수상작

소통

- 20 **건강 식**
딸기의 달콤한 변신, 딸기크림치즈타르트
- 22 **인생 책**
배려, 견고 싶은 도시를 만들다
- 24 **지구 인**
음식물 쓰레기 잘 버리고, 잘 줄이기
- 28 **경제 톨**
쉽고 빠르게 알아보는 이색 재테크 트렌드
요즘은 '리셀테크'와 '조각투자'가 대세!
- 30 **이런 앱**
듣고, 쓰고, 말해주는 똑똑한
어플리케이션, 클로바노트
- 32 **요즘 말**
센스있는 사람들을 위한 말 '알잘딱깔센'

알림

- 34 **독자 마당**
- 35 **제휴 복지**

십이지신의 보호 속에 잠든 김유신 장군

김유신은 신라의 삼국통일과 통일 이후 신라의 안정을 진두지휘한 신라 최고의 장군이다.

사후에 흥덕왕이 흥무대왕으로 봉하였는데, 그 지위에 맞게 무덤 역시 화려하다.

김유신의 묘는 신라의 왕릉과 유사하게 봉분 아래에 호석을 두르고 십이지신을 방위에 맞춰 새겨 넣었다. 사후에도 새해가 시작될 때마다 주목 받는 십이지신의 보호를 받는 김유신 장군. 1월호에서는 김유신의 어록을 소개한다.

글 유민지

지성공지불이 염수성지역난(知成功之不易 念守成之亦難)

얼마 전 인기 끝에 막을 내린 JTBC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할아버지와 손자의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다. 1980~1990년대 한국 경제사를 다룬 드라마로, 큰 성공으로 돈의 맛을 본 기업의 총수가 그 성공을 지키기 위해 매일 연구하며, 긴장을 늦추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 김유신 역시 나라의 성공을 지키기 위해 부하들에게 항상 했던 말이 있다. '지성공지불이 염수성지역난(知成功之不易 念守成之亦難)'. 이 말은 '전쟁을 성공적으로 이끌기도 쉽지 않지만, 평화를 지키는 것 또한 어려움을 항상 유념해야 한다'라는 뜻이다. 즉 항상 긴장을 늦추지 말고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 무언가를 이뤘을 때 그것을 쉽게 잃지 않도록 소중히 해야 한다는 교훈을 준다.

모든 일의 승패는 마음가짐에 달려 있다

〈삼국사기〉에는 그가 수많은 전투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강인한 체력도, 든든한 호위병도 아닌 바로 그의 마음가짐과 정신력이었던 걸 알 수 있는 일화가 기록되어 있다. 만약 그가 마음가짐을 다르게 했다면 우리 역사에 삼국통일은 영영 없었을지도 모른다. [tv](#)

〈삼국사기〉中

아량주의 군주로 지내며, 술을 마시고 풍류를 즐기던 김유신을 백성들은 한심하게 보며 한마디 던진다.

“여러 사람이 편안하게 지낸 날이 오래인지라 힘이 남아 한 번 싸워볼 만한데도 장군께서 게으르니 어이할 것인가?”

이를 듣고 김유신은 왕에게 “지금 민심을 보니 전쟁을 벌려도 될 것 같습니다”라고 고했다. 그러나 왕은 “작은 것이 큰 것을 범하려다가 위태로워지면 장차 어찌하겠는가?”라며 염려했다.

이에 김유신은 “군사가 이기고 지는 것은 크고 작은 데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한가에 달려 있을 따름입니다. 그러므로 주(紂) 임금에게는 아주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마음이 떠나고 덕이 떠났으므로, 주(周)나라의 여진 신하 10명이 마음을 합치고 덕을 합친 것만 같지 못하였사옵니다. 지금 저희는 뜻이 같아서 더불어 죽고 사는 것을 함께할 수 있으니 저 백제라는 것은 죽히 두려워할 것이 없나이다”라고 말했다. 왕이 이에 허락하였다.

*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사료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곳

경주 '동궁원'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경상북도 경주는 발길이 닿는 어디든 문화유적지를 만날 수 있는 곳이다. 동궁과 월지, 월정교, 첨성대와 불국사 그리고 석굴암까지 신라시대 왕족들의 삶과 문화를 엿볼 수 있다. 그중에서도 ‘동궁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동·식물원인 ‘동궁과 월지’를 현대적으로 재현해 눈길을 끈다. 이곳에는 어떤 동·식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우리 조상이 사랑했던 꽃과 새들의 매력 속으로 빠져보자.

글 유민지 사진제공 동궁원, 버드파크





동궁원의 모티브가 된 '동궁과 월지'

꽃과 새들은 공기가 맑고 환경이 깨끗한 곳에서 잘 자라기 마련이다. 옛 우리 조상들은 환경이 좋은 곳이야말로 백성이 살기 좋고, 건강한 나라라고 생각했다. 동궁과 월지 역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직후 살기 좋은 나라, 건강한 나라임을 주변국에 알리기 위해 만들었을 것이라는 게 역사학자들의 의견이다.

동궁과 월지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문무왕은 삼국을 통일한 직후인 674년에 큰 연못(월지, 月池)을 만들었다. 못 가운데에 3개의 섬을 만들고, 못의 북동쪽으로는 12봉우리의 산을 만들 정도로 큰 규모였다. 꽃과 새들을 사랑했던 문무왕은 연못 주변에 온갖 화초를 심고 진기한 짐승을 길렀다. 679년 같은 위치에 별궁(동궁, 東宮)을 건설했는데, 그 안에 임해전(臨海殿)을 비롯한 여러 건물을 지었다. 이후 별궁은 태자가 거처하는 동궁으로 사용되면서 나라의 경사가 있을 때나 귀한 손님을 맞을 때 연회를 베푸는 장소로 이용됐다.

아름다웠던 동궁과 월지의 모습은 오래 유지되지 못했다. 잦은 전쟁과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없어지거나 훼손된 곳들이 많았기 때문. 2010년 신라왕경복원사업의 일환으로 3곳의 전각만 복원해 지금의 '동궁과 월지'의 모습을 갖추었다. 이곳 동궁과 월지는 현재 경주의 대표 관광명소로 자리 잡으면서 월정교, 첨성대와 함께 야경명소로도 유명하다. 과거 이곳 동궁과 월지에서 꽃과 동물들을 기르며 지냈을 문무왕과 신라왕족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는 곳이 경주에 만들어졌다. 바로 경주 동궁원이다.





꽃의 정원 '동궁식물원'

경주 '동궁원'은 다양한 열대식물을 볼 수 있는 동궁식물원부터 새와 곤충을 만날 수 있는 체험장까지, 시민들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사랑받고 있다. 동궁원의 입구를 기준으로 왼쪽에는 동궁식물원과 기념품숍이 있고, 오른쪽에는 버드파크와 덩굴식물원&곤충생태전시관, 꽃 누르미 체험장이 위치해 있다.

먼저 동궁식물원부터 둘러보자. 동궁식물원은 본관과 제2관으로 나뉘어져 있다. 본관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열대과일나무와 야자나무를 볼 수 있다. 우리가 야자나무하면 떠올리는 제주공항 입구에 서있는 야자나무 외에도 카나리아자, 뷰티야자, 피닉스 야자 등 다양한 야자나무를 눈앞에서 만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열대기후에서 자라는 열대 수련도 이곳 동궁식물원에서 볼 수 있다. 열대 수련은 일반 수련과 달리 향기가 짙고 그 색깔도 매우 화려한 것이 특징이다.





00

아름다운 꽃을 봐서 눈이 즐겁고,
향긋한 꽃냄새를 맡아 코가 즐겁고,
다양한 체험활동으로 손이 즐겁고,
경주에 특산품과 먹거리로 입이 즐거운
여행이 가능한 곳.

00

제2관에는 마트에서나 볼 수 있었던 야자열매들이 야자 나무에 주렁주렁 열려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땀에 젖은 열매에서 뿜어져 나오는 상큼하고 달달한 과일향기가 온 건물에 퍼져있어 덩달아 기분까지 좋아진다. 또 담쟁이냉쿨처럼 끈질긴 생명력을 자랑하는 열대 냉쿨식물을 감상할 수 있는 '냉쿨 꽃 정원'도 구성되어 있다. 국내에서는 치료제로 많이 사용되는 모링가, 계피, 가보과 등의 식물들을 볼 수 있는 정원까지,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과 나무들로 지루할 틈이 없다.



오감이 즐거운 여행

동궁식물원을 다 둘러보았다면 이제 다양한 체험을 즐길 차례. 동궁식물원과 가장 가까운 덩굴식물정원&곤충생태전시관에서는 하늘을 가득 채운 덩굴식물과 평소 가까이하지 않았던 살아 있는 곤충을 눈앞에서 관찰할 수 있다. 어린 시절 산에 올라가면 꼭 잡자리나 장수풍뎅이 등을 찾아 헤맸던 기억이 있다. 그 추억을 떠올릴 수 있는 곳이다. 집에서 키우고 싶어도 어떻게 키워야 할지, 먹이는 또 무엇을 먹는지 등 곤충들의 서식환경을 잘 몰랐던 이들은 알찬 정보를 얻어갈 수 있다. 또 직접 곤충에게 먹이를 줄 수 있는 체험도 할 수 있어 곤충박사를 꿈꾸는 많은 어린이의 사랑을 한몸에 받는다.

이외에도 음식 조미료나 향수, 차로만 접했던 허브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숨바꼭질 정원', 오감으로 식물을 만지며 몸과 마음의 위로를 얻는 '원예치료관', 꽃을 오랫동안 보관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꽃 누르미 체험장' 그리고 다양한 새와 동물들을 볼 수 있는 '버드파크'도 있다.

그중에서도 동궁식물원과 함께 가장 인기가 많은 곳인 버드파크는 새도 행복하고 관람객도 행복한 체험형 화조원

으로 만들어졌으며, 경상북도 제1호 전문동물원(박물관) 등록기관이기도 하다. 전문동물원이라는 수식어에 걸맞게 버드파크는 1층에 동식물체험장, 2층에 스토리텔링관을 만들었다.

1층 동식물체험관에서는 펭귄, 앵무새, 플라밍고 등 250종의 새들이 관람객을 반겨준다. 또 직접 새장 안으로 들어가 가까이서 새를 볼 수 있어 아이들에게도 인기 만점이다. 내가 먹이를 쥐고 손바닥을 펼치면 새장 안의 새들이 내 손바닥 위로 모여들어 마치 피리 부는 사나이가 된 듯한 기분이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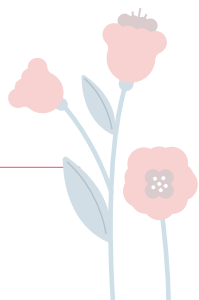
2층 스토리텔링관에는 새들이 어떻게 태어나는지의 부화과정과 새의 기원 등 새와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를 전시하였다. 새에 대해 잘 몰랐던 이들도 이곳 버드파크에 오면 새 박사가 되어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 알찬 구성이다.

버드파크 뒤편에는 다양한 동물들을 만날 수 있는 야외 체험장도 있다. 이곳에서는 거위, 토끼, 타조, 오리, 젓소 등을 가까이에서 보고 직접 먹이도 줄 수 있다. 아름다운 꽃을 봐서 눈이 즐겁고, 향긋한 꽃냄새를 맡아 코가 즐겁고, 다양한 체험활동으로 손이 즐겁고, 경주의 특산품과 먹거리로 입이 즐거운 여행이 가능한 곳. 경주 동궁원으로 오감이 즐거운 여행을 떠나보자. [tt](#)



여행지 정보

위치	경상북도 경주시 보문로 74-14 경주동궁원
문의	054-779-8725
개장시간	09:30~19:00, 연중무휴 (단 버드파크는 10:00~19:00)
매표시간	09:30~18:00(오후 6시까지 입장)
입장료	홈페이지 참조
홈페이지	http://gyeongjuepg.kr/?r=home





창립 50주년 대비
공모전 당선작

나의 새로운 50년 연료

글 이서은

우리 엄마가 50살이 되었을 때, 나는 20살이 되었다. 꼭 30년만큼 차이나는 나이 때문에 새로운 시작을 우리는 언제나 함께 맞아왔다. 어렸을 때는 잘 몰랐다. 앞자리가 바뀌며 시작되는 그 순간은 설렘보다 무겁고 피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크다는 사실을 말이다. 나는 기숙사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서울로 상경했고 엄마의 50이 시작될 때 나는 옆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은 하루하루가 갈수록 내 마음을 더욱 무겁게 눌러왔다. 그 무거운 마음을 깨닫기까지는 꼬박 7년이 걸렸다. 아니, 알고 있으면서 모른 척하고 싶었던 것일지도 모르겠다.

내 대학생활과 취업준비 기간 동안 엄마에게도 많은 일이 있었다. 그날도 아주 오랜만에 집에 내려갔던 날이었다. 산책을 하자는 엄마의 말에 귀찮은 티를 팍팍내며 따라나섰고,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엄마는 딸이랑 오랜만의 시간이 즐거운 듯 신나게 당신의 회사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그러다 엄마는 갑자기 “이건 너 아빠랑 오빠한테는 못하는 얘긴데...”라며 운을 뗐다. 승진을 앞두고 있던 엄마는 사실 그 자리를 잘 해낼 자신이 없으며 새로운 시작이 두렵다고 했다. 피하고 싶다고 피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얼마나 마음의 짐이 무거웠고 생각이 많

았는지, 그날 엄마는 몇 년 만의 딸과의 산책에서 영영 소리 내어 우셨다. 나는 많은 생각이 들었다. 다정한 아빠와 딸 같은 아들이 있다는 속 편한 핑계로 엄마를 너무 외롭게 했다는 후회가 밀려왔다. 무엇보다 능력 있고 인정받는 엄마도 새로운 시작 앞에서는 어린아이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바로 그날, 내가 이제껏 모른 척 해왔던 무거운 그 어떤 마음을 마주하게 된 것이다. 이후 엄마는 그 직책을 맡게 되면서 많이 힘들었다고 한다. 30년 베테랑인 엄마가 퇴사를 고려했다고 할 정도라니, 구구절절한 설명 없이도 나는 한 번에 이해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날 그렇게 후회를 했으면서도 정작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엄마 곁에 또다시 함께 있어 주지 못했다. 여전히 엄마의 시작엔 내가 없었다.


이번엔 내 차례였다. 그토록 바라던 교직원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지만 ‘내가 잘할 수 있을까?’하는 걱정과 평생 직장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부담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하지만 엄마는 이 파도 속에 내가 휩쓸려가게 가만히 놔두지 않았다. 이미 같은 파도에 휩쓸려본 엄마는 물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요령을 알고 있었다. 엄마는 엄마로서, 또 사회의 선배로서 자신이 줄 수 있는 모든 것

을 주고 싶어 했다. 사학연금과 교직원 공제회를 알려주며 경제관념을 일깨워주고 교직원의 어려움은 무엇인지 잔소리로 느껴질 때까지 조언해주고 공감해주었다.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나를 깊은 바닷속에서 육지로 끌어 올려 주었다. 하지만 그때, 난 산책 날 올던 엄마의 모습이 다시 떠오르고 말았다. 그때의 엄마도 지금 자신처럼 알려줄 사람이 간절했겠지. 참 애석하게도 엄마와 같은 신분이 되고 같은 고민을 공유할 수 있는 나이가 되자 이때까지 엄마가 겪어왔던 무겁고 두려운 시작들이 이해되기 시작했다. 엄마가 50살이 되던 날, 아직 40살인 줄 알았는데 벌써 50살이라며 웃던 모습이 생각났다. 그 말 뒤에는 많은 감정들이 있었겠구나를 이제야 비로소 이해하려고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올해 사학연금의 식구가 되어 사학연금 담당업무를 하고 있는 나는 이상하게 사학연금 홈페이지를 들어갈 때마다 엄마가 떠올랐다. 왜 그럴까를 생각해보니 내가 시작할 때 엄마가 들려준 사학연금 이야기들이 마음속에 저장되어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왜 무의식에 떠오를 만큼 깊게 저장되어 있을까를 또 곰곰이 생각해보니 내가 엄마가 겪는 시작에 대해 처음 생각했던 7년 전 그날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되었다. 나는 자기 마음 하나 알아주는 데 7년이나 걸리는 나 같이 무심한 딸이라면 서운할 것 같은데, 우리 엄마는 나에게 나만큼 예쁜 딸을 낳았으면 좋겠다고 노래를 부르신다. 태양이 빛을 생색내지 않듯이 엄마는 어떠한 바람도 없이 언제나 나를 밝혀주었다. 나는 이 사실을 세월이 지날수록 한 땀 한 땀 더 느낄 수 있게 되었다.

주변 친구들은 갱년기 엄마를 맞춰주기 힘들다며 입을 쭉 빼며 투덜대곤 한다. 그럴 때마다 나는 엄마 옆에 있어 줄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라며 구박을 준다. 그래봤자 아무리 얘기해도 모를 것 같지만 나 같은 늦은 후회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버린다. 사실 나도 엄마가 산책을 가자던 그날, 귀찮다며 나가지 않았다면 평생 동안 깨닫지 못했을 것이다. 지금 글을 쓰는 이 순간의 감정을 잊지 않고 여전히 처음 겪게 될 엄마의 앞으로의 50년만큼은 세상 그 누구

보다 가깝고 든든한 딸이자 친구가 되어주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 번 하게 된다.

나는 엄마의 옆에 있어 주지 못했다는 그 무거운 마음을 나를 태우는 연료로 삼기로 했다. 엄마의 50년과 나란히 서기엔 내가 아직 겪어야 할 일이 많지만, 하루하루 그 뒤를 열심히 쫓아가다 보면 언젠가 손만 살짝 뻗어도 엄마를 잡아줄 수 있게 되는 그런 날이 오겠다는 확신이 생겼다. 이 끈고 단단한 확신은 엄마와의 관계에서 조금 더 솔직한 딸이 될 수 있게 하였고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하고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 엄마와 딸은 그런 관계니까. 





창립 50주년 대비
공모전 당선작


사 학 50 살

글 박두현

한 길 묵묵히 반백년을
선후배 한 마음으로
비바람 피하지 않고
눈보라에도 멈추지 않고
가야할 길 걸어왔네

앞서 가신 분은 선구정신으로
뒤에 가신 분은 개척정신으로
길 없는 곳에 길을 놓고
한 말씀 한 걸음도 신중하게
보태고 나누고 함께했네

살림곳간 때때로 안정되니
주인 아닌 사람 없고
원칙 없는 주인 없어
새로운 반백년도
처음처럼 걸어가리

사학연금 50년의 약속으로
사학교원에 100년의 믿음주니
사명으로 교단에 오르고
열정으로 가르침에 봉사하고
물러남에 보람이 가득하네 





창립 50주년 대비
공모전 당선작

50이 되어서야

글 박정규


그냥 온 것이 아니다
문득 뒤를 돌아보니
가르치던 아이에게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겹쳐 있다

그냥 온 것이 아니다
뜨겁던 것이 식혀지고
부딪히고
부서진 것이다

인생의 반일지
막바지일지
알 수 없는 50이
그냥 온 것이 아닐 것이다

뜨겁지 않다는 것이
열정이 없다는 것이 아니다
뜨겁지만 날이 서있던 나는
어느새 몽근해졌다

뜨겁지 않다는 말이 지 차갑다는 말이 아니다
사람을 물리서게 하는 뜨거움이 아니라
한걸음 다가서게 하는 따뜻함이다

한 방향으로 흐르던 열기는
어느새 나눌 수 있는 온도가 되었다
몽근하게
적당한 온기로
끓이지 않고 너에게로 향한다 





2022년 사학연금
재능나눔 캠페인 수상작

보람있는 삶

글 이우상 / 한일 여자고등학교 퇴직



‘저는 교직 생활 은퇴 후, 김천실버문화대학에서 글자를 모르는 어르신들에게 한글을 지도하면서 노년을 보람있게 보내고 있습니다. 한 어르신은 글자를 모른 채 평생을 답답하게 살아오다가 한글을 깨우치게 되니 세상이 새롭게 보인다며 너무나 좋아하셨습니다. 손자 손녀들에게 손 편지를 보낼 수 있게 되고, 길을 나서면 간판 글자도 읽을 수 있고, 시내버스 안내판도 알 수 있고, 세상이 현히 보인다면서 얼굴마다 웃음꽃이 가득합니다. 이제는 글짓기 지도까지 병행하여 한 편, 한 편 모은 글이 76편이 되었습니다. 100편이 되면 책으로 꾸밀 생각을 하면서, 어르신들 모두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2013년 12월 4일 KBS 제1라디오, <행복한 시니어, 지영서 아나운서> 프로에 방송된 내용의 일부입니다. 2015년 12월 4일, 175쪽 총 96편을 실은 「해처럼 달처럼」 문간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책이 나왔을 때 한 어르신은 책을 가슴에 꼭 껴안는가 하면, 어떤 어르신은 얼굴에 대고 문지르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시고 서로 껴안고 기뻐 하시는데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본인이 쓴 글을 찾아, 보고 또 보고 신기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크게 감동했습니다. 책 이름도 어르신들이 결정하셨는데 지금까지 깜깜한 암흑 세상에서 살다가 이제 해나 달처럼 환하게 되었으니 제목을 ‘해처럼 달처럼’으로 하자고 의견을 모



「해처럼 달처럼」 문간

았습니다. 「해처럼 달처럼」은 500권을 인쇄하여 김천시 내 경로당, 시립도서관 복지회관 등과 실버대학 전교생 240분에게 나누어 드렸습니다.

수업할 때는 열심히 참여하고 줄줄 읽고 잘 쓰지만, 일주일 후가 되면 거의 다 잊어버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도 반복 연습을 거듭하여 일 년이 지나갈 때 드디어 한 자 한 자 깨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칭찬도 드리며 싫증이 나지 않도록 유도했고 일기 쓰기도 병행하여 글짓기 지도를 시작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를 며느리로 둔 88세의 어느 할머니는 30리 길을 멀다고 하지 않고 개근하셨습니다. 며느리와 손자를 봐서라도 반드시 글을 배워 당당하게 서야겠다고 다짐하셨습니다. 그 할머니의 글 〈사랑하는 손자, 창헌에게〉의 일부를 소개해보면,

‘할머니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창헌이에게 오늘 난생처음으로 편지를 쓴다. 사랑하는 내 손자, 아니 내 새끼, 눈에 넣어도 하나도 안 아플 우리 손자 창헌이가 좋은 대학에 합격했다니 할머니는 하늘을 나는 기분이다, 너무나도 기뻐서 지난밤에 한숨도 자지 못했다. 어린 고사리손으로 할머니 등을 굽어주던 우리 창헌이가 어느새 어엿한 대학생이 되었구나. <중략> 졸업할 때까지 열심히 공부하여 창헌이에게 당당한 할머니가 되도록 약속할게. 우리 창헌이, 열심히 공부하여 반드시 가정과 나라를 위하여 꼭 필요한 인물이 될 것을 할머니는 확신한다. 창헌아, 추운 날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잘 있거라. 안녕. 김천에서 할머니가.’

2009년 8월 31일 정년퇴임하고 ‘오후를 어떻게 보낼까?’ 고민하던 중 실버대학에서 한글 지도교사를 뽑는다는 소식을 듣고 신청한 것이 계기가 되어 어느새 12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한글 지도에 대해 공로를 인정받아 2020년 12월 4일, 대한노인회 이사장으로부터 전국 재능나눔활동 우수사례공모전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수업받는 어르신들의 웃는 얼굴을 보면서 보람도 느끼고 ‘살맛’이 났습니다.

2022년에는 한글 지도 이외에도 김천노인종합복지관의 기자단에 위촉되어 복지관 각종 행사를 기사화하여 김천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매주 2회(화, 목) 복지관 이곳저곳, 청소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7일에는 김천 농협 및 김천 대학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하는 청춘대학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여 재능을 키워 남에게 베풀기 위해 청춘대학에 입학했고 열심히 출석하여 우수 표창장 및 개근상까지 받았습니다. 봉사활동이 안겨주는 기쁨은 어디에도 비길 데 없을 정도로 즐겁습니다. 뿌듯한 마음으로 퇴직 후 봉사활동을 계속하며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해서 재능나눔활동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tv](#)



딸기의 달콤한 변신

딸기크림치즈타르트

글 문소현



한겨울이 되면 딸기를 이용한 디저트들이 쏟아져 나온다. 원래 딸기는 봄이 제철이지만 하우스 재배가 늘어나면서 겨울에도 맛있게 먹을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겨울에 먹는 딸기 디저트는 별미 중의 별미! 그중에서도 달콤한 딸기와 부드러운 크림치즈가 만난 딸기크림치즈타르트는 먹기에도 아까울 만큼 예쁘기까지 하다. 예쁜 모양을 눈으로 한 입, 달콤한 향을 코로 한 입 그리고 달콤한 맛을 입으로 한 입 먹을 수 있는 딸기크림치즈타르트를 만들어 보자.



재료

18cm 타르트틀 1개, 크림치즈 100g,
사워크림 35g, 흰 설탕 35g,
생크림 1/4컵, 딸기 15~20개


반죽 재료

버터(무염) 80g, 슈가파우더 45g,
계란노른자 1개, 바닐라설탕 8g,
밀가루(박력분) 125g, 소금 1/8 작은 술

Tip!

딸기는 세척 후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주는 것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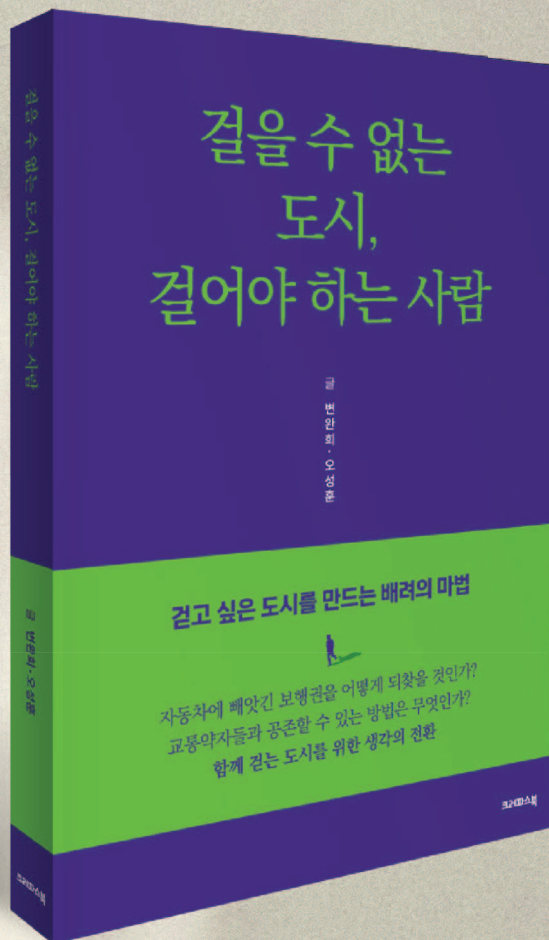
만드는 법

1. 버터를 풀어주고 슈가파우더, 바닐라설탕을 넣고 가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섞는다.
2. 소금, 계란노른자, 밀가루를 넣고 스패츨러로 덩어리가 되도록 뭉쳐 반죽을 만든 후 비닐에 담아 냉장고에서 30분 정도 휴지시킨다.
3. 반죽을 밀대로 밀어 얇게 편 다음 타르트틀에 올린 후 밀착시킨다. 이후 포크로 바닥과 가장자리에 구멍을 내고 180도로 12~15분간 구워 타르트시트를 만든 뒤 식힌다.
4. 큰 볼에 크림치즈를 넣고 풀어준 후 사워크림과 설탕을 넣어 충분히 섞는다. 다른 볼에 생크림을 휘핑한 후 큰 볼로 옮겨 담아 스패츨러로 섞어 필링을 만든다.
5. 타르트시트가 완전히 식으면 만들어 놓은 필링을 잘주머니에 넣고 타르트시트에 채운다.
6. 딸기를 올려 취향대로 예쁘게 꾸며준다. 

“

자동차들이 점령한 도시를 걷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교통 약자들도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



*본 도서는 출판사 '크레파스북'에서 협찬 받은 도서로 이벤트를 통해 5분께 증정합니다.

배려, 걷고 싶은 도시를 만들다

책 〈걸을 수 없는 도시, 걸어야 하는 사람: 걷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배려의 마법〉

제공 크레파스북

걷는 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는 마음 놓고 걷기 어려운 곳이 되었다.

도시의 모든 인프라와 시스템이 자동차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에 빼앗긴 보행권을 되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도시에서 교통약자들과 공존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걸을 수 없는 도시, 걸어야 하는 사람〉에는 그에 대한 고민과 해답을 담았다.

이 책은 교통 전문가 변완희, 도시 전문가 오성훈이 함께 쓴 보행권 회복에 관련된 보고서이자 에세이다.

저자는 걷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배려'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단순히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을 넘어서 걷는 사람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고

서로를 배려할 때 비로소 '걷고 싶은 도시'를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저자는 '걸을 수 없는 도시'의 현실을 드러내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한다. 고대 도시에서 현대 도시에 이르기까지 가로 환경의 변천사를 살펴보고

보행권의 발전 과정을 짚어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도시와 가로 환경의 모습을 제안한다.

〈걸을 수 없는 도시, 걸어야 하는 사람〉은

도시계획을 추진하는 관계자와 연구자는 물론 '걸어야 하는' 모든 독자들에게 다양한 이해를 줄 것이다. [▶](#)

지은이 변완희, 오성훈

발행일 2022년 12월 16일

정가 17,000원

ISBN 979-11-89586-53-9(03300)

음식물 쓰레기 잘 버리고, 잘 줄이기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에 의하면 전 세계에서 한 해 동안 생산되는 식량은 약 40억 톤으로 추산되는데, 이 중 10억 톤가량이 식량이 되지 못하고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진다. 이는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큰 문제를 야기시킨다. 음식물 쓰레기로 발생한 온실가스가 전 세계 배출량의 8~1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유엔환경계획(UNEP), 2021 음식 폐기물 지수 보고서). 가까운 음식물이 쓰레기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생활 속에서 노력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음식물 쓰레기를 잘 버리는 방법과 줄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글 정미래

무엇이 음식물 쓰레기고, 무엇이 일반 쓰레기?

매번 버리지만 버릴 때마다 알쏭달쏭한 것이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방법이다. 분명 내가 먹었던 '음식'인데 음식물로 버려선 안 되는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 대다수의 음식물 쓰레기는 재활용 공정을 거쳐 퇴비나 사료로 만들어진다. 동물이 섭취하기 어려운 음식이나 재활용 설비에 투입했을 때 고장을 일으킬 수 있는 것들은 일반 쓰레기로 취급된다.

하나씩 살펴보자. 채소 껍질, 뿌리, 꼭지, 씨앗은 음식물 쓰레기일까. 정답은 'No'다. 마른 채소의 껍질, 뿌리, 꼭지, 씨앗은 기계에서 잘 분쇄되지 않고, 섬유질이 많아 가축이 먹으면 소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꺾이나 사과, 바나나 등의 과일 껍질이나 딸기, 토마토 등의 과일 꼭지는 어떨까. 과일 껍질과 꼭지는 상대적으로 부드러워 가축이 먹을 수 있다. 대신 파인애플이나 코코넛처럼 껍질이 단단한 과일 껍질은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해선 안 된다. 또 호두, 밤, 땅콩 같은 견과류 껍질도 마찬가지.

고추와 마늘처럼 매운맛을 내는 것들도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해선 안 된다. 여기에는 캡사이신과 알리신 성분이 많아 사료나 퇴비로 만들기에 적합하지 않다. 우리의 입맛을 돋우는 장류는 어떨까. 사람의 입에는 맛있지만 소금기가 가득하기 때문에 사료나 퇴비의 품질을 악화시키므로, 역시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하면 안 된다. 하지만 똑같이 소금기가 많아도 김치나 젓갈은 물에 씻어 소금기를 덜어낸 후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해야 한다.

육류 중에도 일반 쓰레기 봉지에 직행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 바로 동물과 생선의 지방과 내장이다. 여기에는 포화지방산이 많아 사료로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계란이나 메추리알 등 알껍질 또한 사료나 퇴비를 생산하기에는 부적절해 일반 쓰레기로 배출하면 된다. 단단한 조개류와 갑각류의 껍데기 역시 분쇄가 어려우니 일반 쓰레기통에 버리도록 하자.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우리의 자세

언제나 집안일의 가장 큰 골칫거리가 바로 음식물 쓰레기다. 귀찮고 냄새나서 버리는 것부터 고역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는 애초에 양을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 평소에 몇 가지만 신경 쓴다면 어렵지 않게 줄일 수 있다.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다음의 여섯 가지를 잘 실천해보자.



① 식단과 유통기한 고려해 최소한의 식재료만 구입

장을 보러 가기 전 식단을 정한 후 최소한의 식재료만 구입하면 식재료를 낭비하는 일이 줄어든다. 구입할 때는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계획 없이 식재료를 살 경우 먹지도 못하고 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적인 장보기는 필수다.



② 주기적으로 냉장고 정리하기

냉장고는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냉장고 속 식재료를 체크해야 음식물이 쓰레기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자주 들여다보는 게 어렵다면 냉장고 지도를 그려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렇게 하면 잊은 식재료 없이 알차게 소진할 수 있을 것이다.



③ 자투리 식재료는 따로 모아 보관하기

음식을 하다 보면 애매하게 식재료가 남을 때가 있다. 이럴 때 식재료를 그냥 버리지 말고 모아서 보관하면 간단한 음식을 만들어 먹을 때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다. 남은 자투리 식재료라고 그냥 버리지 말고 모아서 새로운 요리로 재탄생 시키자.



④ 소포장, 반가공 식재료 구매하기

요즘에는 무 1토막, 양배추 반통 등 소포장된 식재료들이 판매되고, 밀키트와 같이 재료가 손질된 반가공 식품도 많이 출시되는 추세이다. 1인이나 2인 가구라면 한번에 많은 양의 식재료를 구매하지 말고 소포장, 반가공 식재료도 활용해보자.



⑤ 투명 용기에 식재료 보관하기

아무리 냉장고 속을 잘 들여다봐도 식재료가 불투명한 용기에 담겨 있으면 어떤 식재료가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식재료를 잘 보이는 투명 용기에 보관하면 상하는 식재료 없이 알뜰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⑥ 계량 기구를 활용하여 적절한 양만 조리하기

요리를 하다 보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양의 요리를 하게 될 때가 있다. 이럴 때 계량 기구를 활용해보자. 적정 양만 요리하게 되면 과식하는 일도 없고, 음식을 남겨서 버리는 일도 줄어들 것이다.

과거에 비해 우리는 식량이 풍족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지구 반대편 어느 곳에서는 여전히 기아에 시달리는 이들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 또 우리가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로 인해 많은 양의 물이 소비되고 온실가스가 발생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이런 작은 실천이 모여면 큰 움직임이 되어 우리와 지구가 더 오랜 시간 공존할 수 있다. 지구와 지구를 터전 삼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보자. [t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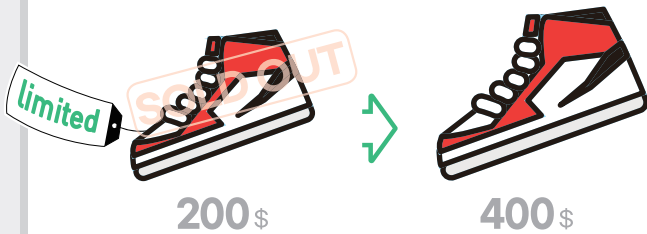
쉽고 빠르게 알아보는 이색 재테크 트렌드 요즘은 ‘리셀테크’와 ‘조각투자’가 대세!

우리가 열광하는 희소성, ‘리셀테크’로 부자되기!

**꼭두새벽, 많은 이들이 백화점 앞에 줄을 섰습니다. 왜일까요?
희소성을 지닌 물건을 구매하여 ‘리셀테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RESELL(되팔다) + 재테크
= 리셀테크**



리셀테크란 소장 가치가 높은 한정판 제품을 구입한 후 나중에 구매한 가격보다 비싼 가격에 되팔아 이익을 남기는 재테크 방법을 뜻합니다.

나도 리셀테크를 위해
한정판 상품을
구매하는 리셀러야!



인기 브랜드 굿즈나 빵을 사면 함께 들어 있는 귀여운 띠부셀까지!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리셀테크는 일상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리셀테크 시 주의점!

개인거래 특성상 안전을 위해 상대방 정보 꼼꼼하게 확인하기



한정판이더라도 수요가 없다면 판매되지 않거나 가격이 오르지 않을 수 있음



판매하려는 제품 거래가 합법적인지 확인하기(공연티켓은 불법)



주식, 코인 등으로 쓸렸던 투자 손길이 잠잠하다. 재테크의 트렌드가 점점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MZ세대가 주목하고 있는 재테크 방법인 '리셀테크'와 '조각투자'에 집중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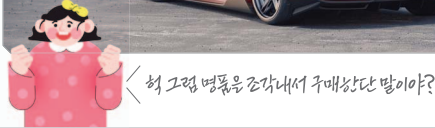
헉 소리 나오는 수익을 얻는 것은 물론 건물, 명품, 예술작품의 주인이 될 수도 있다. [n](#)

글 편집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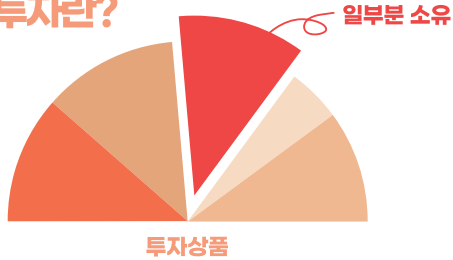
쓸 수 없지만 난 내 거야! '조각투자'로

단돈 천 원으로 재테크할 수 있는 방법 '조각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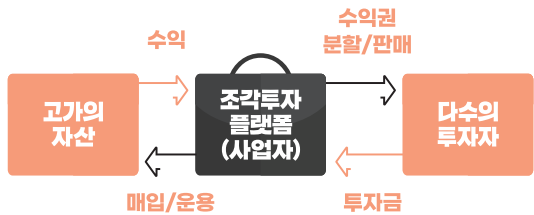
수백만 원짜리 명품부터 수억 원에 달하는 슈퍼카까지! 심지어 송아지도 '조각투자'를 할 수 있어요.



조각투자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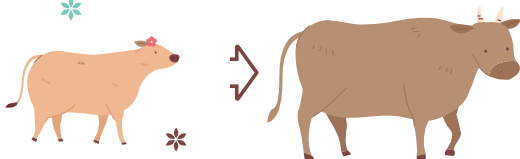


조각투자란 투자 상품의 일부분에 투자를 하고, 투자한 만큼의 소유권을 갖는 재테크 방법입니다.



결국 고가의 제품을 다른 투자자와 함께 구매해 부담을 낮추고, 되팔아서 생긴 수익을 투자한 비율만큼 나누는 거죠!

송아지 400 만 원 * 소 1,500 만 원



100명이 4만 원씩 투자해 송아지를 구매하고, 성체가 되었을 때 판매해 15만 원씩 나누는 것처럼 말이에요! 물론 수수료는 별도입니다.

조각투자 시 주의점!

- 상품의 가격 변동이 극심할 수 있음
- 팔고 싶을 때 못 팔 수 있음
- 제품을 판단할 지표가 부재할 수 있음



다들 그런 경험이 한 번씩 있을 것이다. 회의 때 잘 듣고, 필기도 잘 했는데 나중에 확인하면 도무지 무슨 내용이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필기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내용에 대해 이해를 못 하는 경우 말이다.

이런 가슴 철렁한 일을 줄여주는 것이 바로 클로바노트다.

녹음된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시켜주는 똑똑한 어플리케이션, 클로바노트에 대해 알아본다.

글 정미래

듣고, 쓰고, 말해주는 똑똑한 어플리케이션 클로바노트



클로바노트, 너는 누구니?


AI 음성 기록 서비스인 '클로바노트'는 딥러닝 기술을 활용해 녹음된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하는 STT(Speech-To-Text) 서비스다. 네이버에서 자체 개발한 초거대 AI인 '하이퍼 클로바' 기반의 음성 인식 기술과 화자 인식 기술이 적용돼 음성 인식뿐만 아니라 화자까지 구분해주는 신방통한 앱이다.

회의할 때, 수업 들을 때 유용

회의나 수업 시간에 녹취를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나중에 음성 파일을 듣고 텍스트로 옮기는 작업이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니다. 녹취를 듣고 이것을 글로 옮기는 것도 오래 걸리는 데다 음성만 들으면 이해하는 게 어려울 때도 있다. 클로바노트는 이런 귀찮은 일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방법은 간단하다. 클로바노트로 직접 녹취하거나 음성 파일을 클로바노트에 올려 텍스트로 변환하면 끝이다. '어플이 얼마나 정확하겠어?', '나중에 더 귀찮아지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물론 완벽하게 텍스트가 변환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야기의 흐름과 문맥으로 무슨 단어인지 유추가 가능하기 때문에 음성 파일을 듣고 텍스트를 옮기는 것보다 시간이 절약되는 건 확실하다.

음성 파일을 텍스트로 변환해주는 것 외에도 각 사람의 목소리를 구별하여 분류해주기 때문에 다시 듣고 싶은 부분을 찾아 듣기에도 편리하다. 또 텍스트 파일은 다양한 형식으로도 저장할 수 있다. Excel, Word, 한글, txt 등 원하는 형식으로 다운로드하면 된다. 한글과 Word로 저장할 경우 참석자와 시간 정보, 하이라이트까지 포함된다.

게다가 클로바노트는 쓰면 쓸수록 똑똑해진다는 장점이 있다. 사용 초반에는 정확도가 낮을 수 있지만 사용수록 정확도가 높아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클로바노트 사용방법 어렵지 않아요!



1. 클로바노트 다운로드
2.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
3. 하단의 검은색 동그라미를 누르고 음성녹음 혹은 파일 업로드 누르기
4. 녹음이 완료되면 음성의 종류를 선택한 후 확인 누르기
5. 잠시 후 텍스트로 변환된 음성파일 확인하기

클로바노트 알아두면 더 알차게 사용할 수 있는 꿀팁

- 꿀팁 1** 이용설정에 자주 쓰는 단어를 선택하세요. 정확도가 올라갑니다.
- 꿀팁 2** 다른 사람과도 녹음파일과 텍스트를 공유할 수 있어요.
- 꿀팁 3** 중요한 내용에는 북마크를 달아주세요.
- 꿀팁 4** 요약이 필요할 땐 시요약을 사용해 보세요.

출처: 네이버

센스있는 사람들을 위한 말

‘알잘딱깔센’



길을 걷다 우리 말이 아닌 듯한 낯선 단어에 잠시 '멈칫'하는 순간이 있다. 그럴 때마다 단순히 세대 차이라며 자신을 위로한 적이 있지 않은가. 앞으로는 그러지 말자. 같은 한국 사람이라면 서로의 말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준비했다. 요즘 애들이 많이 사용하는 말, '알잘딱깔센'이다.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있게'의 준말로 유명 게임스트리머인 '우왁굳'이 방송에서 처음 사용하며 크게 호응을 얻었다. 요즘은 직장, 학교, 방송 등 다양한 곳에서 활용된다는 데, 다음 두 형제의 대화를 통해 '알잘딱깔센'을 언제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보자. [tvN](#)



#알아서잘딱깔끔하고센스있게



형! 어젯밤에 축구 봤어? 손흥민 선수랑 황희찬 선수의 완벽한 플레이 봤냐고!

당연히 봤지! 내 가슴이 얼마나 뛰던지... 말해 뭐해~



진짜 서로 눈빛만 봐도 어디로 넣을지 딱 아는 것 같아!

두 선수의 플레이는 '알잘딱깔센'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지!!



맞아! 어쩜 그렇게 타이밍을 딱 맞추서 황희찬 선수가 나타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아주 깔끔하게 골까지 넣어버렸지~

그게 바로 '알잘딱깔센' 팀워크지!



우리 대표팀 선수들이 팀워크가 좋기로 유명하잖아~
그럼 우리 대표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따가 축구게임이나 할까?

좋아! 어제 축구를 열심히 봤으니까 완전히 잘할 수 있어!



우리도 한 번 환상의 팀워크를 보여주자고~

빨리 숙제 끝내고 가져!



이벤트는 월간 <사학연금> 웹진에서 더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웹진에서만 즐기는 이벤트!

- ① 알쏭달쏭 빈칸 퀴즈에 참여해주세요.
- ② 월간 <사학연금>의 칼럼을 읽고 감상평을 보내주세요.

참여방법: 웹진 접속 후 메인 하단 EVENT 코너 클릭!

참여기간: 2023년 1월 18일(수)까지



월간 <사학연금>은 독자들의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1월 18일 마감)

코너명	코너 소개	응모 방법	독자 선물
만남 (인터뷰)	월별 테마에 맞는 사학가족을 찾습니다. 2월호 테마-성종(제도) 교복을 벗는 졸업이 있는 달, 2월. 조선 시대에는 유생에게 '청금(靑襟)'이라는 교복을 입혔다고 하는데요. 청금을 제복으로 정한 성종 이야기를 담을 예정입니다. 성종처럼 교육 제도에 관심 있는 선생님 또는 사학가족을 추천해주세요.	추천 인물과 이유를 연락처와 함께 웹진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사진 인화 및 탁상용 액자
짓다	사학가족이 직접 쓴 시 또는 수필을 소개합니다. *내용과 주제는 자유	한글 파일 형태로 원고지 10매 이내 (10포인트 기준 A4 1장)로 작성하여 웹진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문화상품권
인생 책	신간 도서를 소개합니다. 해당 도서를 읽으면 좋을 만한 사학가족을 추천해주세요. 해당 도서를 보내드립니다.	추천 인물과 이유를 연락처와 함께 웹진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도서
웹진 이벤트	1. 빈칸 채우기 2. 독자의견	웹진에서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스타벅스 커피 기프트콘

🌸 당신에게 꽃 이벤트는 2022년에 종료되었습니다. 🌸

**이벤트
참여 방법**

🌐 이메일 magazine@tp.or.kr

*독자 선물 제공에 필요한 성함, 생년월일, 연락처를 꼭 적어주세요.

*선물 발송일: 해당 월(기교 글이 게재된 달) <사학연금> 발행 후 15일 이내로 발송됩니다.

응모기간
2023년
1월 18일(수)



사학연금 교직원 전용 에듀윌 교육복지몰 OPEN

사학연금 교직원을 위한
에듀윌 강좌 특별 할인 혜택!
지금 바로, 교육복지몰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해 보세요



이용 대상

사학연금 교직원 및 연금수급자 누구나

제공 혜택

기술/전문 자격증 등 에듀윌 온라인 강좌
정가 대비 최대 40%, 프로모션가 대비 최대 15%
특별 할인가 제공

이용 방법

tp.eduwill.net 회원가입 후 이용
회원가입 인증번호는 사학연금 제휴복지 홈페이지
로그인 후 확인 가능합니다
[복지몰]-[교육복지몰]-[화면 오른쪽에 기재]



사학연금(TEACHERS' PENSION) QR코드 안내



웹진



유튜브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알림톡

알림톡을 친구 추가하시면
다양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소식을 빠르게 접할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연금dream 콜센터 전국 어디서나 1588-4110

본사(나주)

(58326)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45 (빛가람동)

☎ 061) 338-0000

서울센터

(0732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7층
(여의도동, 전경련회관)

☎ 02) 769-4401~4404

대전센터

(35209)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809 사학연금회관
14층 (둔산동)

☎ 042) 538-2371~2375

부산센터

(4735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일로 181
사학연금회관, 7층 (범천동)

☎ 051) 637-6015~6018